

## ‘시간이 생명’ 광주·전남 뇌졸중 환자 40%가 병원 옮긴다

치료센터 광주 2곳 뿐·전남엔 아예 없어 병원이송 전국 평균의 2배  
전남도민 뇌혈관 질환 사망률 道단위전국 최고 ... 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들은 10명 중 2명 정도가 응급치료를 위해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반해, 광주·전남지역 뇌졸중 환자는 10명 가운데 4명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졸중 전문 치료센터가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탓으로, 특히 전남지역 뇌졸중 환자는 전국 평균(20%)에 비해 배 이상 높은 44.6%가 전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뇌혈관 질환 사망률도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뇌졸중학회 측은 최근 ‘뇌졸중 치료향상을 위한 병원 전단계 시스템과 뇌졸중센터 현황 및 방향성’이란 제목의 배후 자료를 통해 “뇌졸중 ‘골든타임’은 통상 3~6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조치에 해당하는 혈전용해제 투여 골든타임은 4.5시간이지만, 전조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할수록 치료 효과는 더욱 좋다.

하지만 전남지역 뇌졸중 환자들이 가장 많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뇌졸중학회의 최근 3년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첫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는 비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9.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인천(14.1%)·서울(15.6%)·경기(16.4%) 등 수도권이 뒤를 이었다.

부산(16.6%)과 대전(19.6%)도 20% 이하였지만 전남은 44.6%, 광주는 34.5%로 전역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같이 광주·전남 뇌졸중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야 하는 전원이율이 높은 이유는 ‘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가능한 뇌졸중 전문 치료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뇌졸중 전문 치료센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0곳이 있으며 대구·경북권 7곳, 부산·경남권에 10곳이 있지만 광주·전남에는 단 2곳(전남대, 조선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권에는 아예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들은 증상 발생시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은 뒤, 광주로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뇌혈관 질환 사망률도 전남이 22.5%로 의료 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낙후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북 21.7%, 경남 21%, 경북 20.7%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전체 뇌졸중 환자의 78%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환자임을 감안하면 전남과 전북, 경북 등 고령화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뇌졸중 치료센터를 집중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한뇌졸중학회 관계자는 “뇌졸중은 환자의 생명과 후유 장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심각한 질환이다”며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환자 수요를 감안한 전문 치료센터 개설, 병원 방문 전단계에 환자 상태를 따라 정확한 의료가 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폭염 피해 새벽에 부추 수확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4일 비닐하우스 내부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자 광주시 남구 양촌동 농민들이 아간과 새벽시간을 이용해 부추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국회 원구성 합의 ...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국회부의장에 정진석·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4일 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들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관련기사 4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여야가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인사 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

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개인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돼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 이어 국회부의장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선출됐다.

3년만에 ... 코로나 없는 해수욕장 개장 ▶7면

굿모닝 예향 - 핸드메이드 전성시대 ▶18-19면

KBO 올스타전 나눔 올스타 KIA 9명 선발 ▶22면



김진표 의장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국회의장 선출 및 원 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기로 약속하면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공개 제안을 했고, 이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하면서 여야가 국회의장단을 합의로 선출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윤대통령,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사실은 김승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가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공개됐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



박순애 부총리

된 것은 김장기 국제정세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사실을 김승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가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공개됐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라남도

# 전라남도 일자리의 모든 것! 일자리통합정보망에 있습니다.

구인구직

일자리 지원

교육 훈련

AI 플랫폼

job.jeonnam.go.kr |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 061)287-1142~3